

인문대학 국제화지원센터(CHIO) 이동신 원장님 인터뷰

학내기관탐방

• • •
 인터뷰
 박정희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글쓰기교실 연구교수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인문대학 국제화 지원센터(CHIO)를 방문하여 이동신 원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2016년 3월 30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원장실에서 진행했다.

원장님, 바쁘신 중에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는 학생과 교수님들에게 학습과 교수 역량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번에 인문대학 국제화지원센터(CHIO)를 방문하여 원장님으로부터 우리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을 소개받고, 가능하다면 유관기관으로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연계하여 학내구성원들에게 더 적절하고 알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우선 인문대학 국제화지원센터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HIO는 인문대학 구성원 모두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과 넓은 안목을 갖추도록 돋고, 인문대학의 교육과 연구가 국제적으로 월등한 수준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1년 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인문대학 학생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제화 경험을 넓힐 수 있도록 CHIO에서는 현재 인문대 학생을 대상으로 언어교육원 외국어 강의 수강료 지원, 외국어 논문 작성 지원, 일대일 교정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학생이 대 학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국어 연습, 언어교육원 한국어 강의 수강료 지원, 한국어 논문 작성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국어 출판물 교정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인문대학 교수님의 연구를 돋고 있으며, 외 국인 교수님에게는 언어교육원 한국어 강의 수강료를 지원하고, 내·외국인 교수들이 서로 잘 알고 지낼 수 있도록 외국인 교수와의 점심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져왔습니다. 보다 더 나은 교육과 연구 환경을 조성하려는 인문대학의 노력에 발맞춰 CHIO는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이용률과 그 반응(만족도)이 궁금합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저희 센터에서 지원한 프로그램 건수는 1,400여 건이 됩니다. 홈페이지와 이메일로 신청한 건수는 2천여 건이 넘지만 심사를 거쳐 실제 지원이 이루어 진 건수가 그렇습니다. 매년 평균 350건의 프로그램을 지원한 것이 되는데, 인문대 학생이 2 천여 명이 넘는 것을 생각하면 높은 이용률이라고는 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른 교내기관에서도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다라도 좀 더 이용률을 높일 필요 가 있습니다. 특히 신입생의 경우, 저희 센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센터를 홍보할 예정입니다. 이용해 본 학생의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홍 보를 통해 이용률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연습 프로그램'은 현재 학기당 20~30명의 학생이 수업 을 듣고 있는데, 이는 인문대 전체 유학생 수가 100명이 안 되는 상황을 생각하면, 꽤 높은 이 용률입니다. 또한 실제로 종강하자마자 다음 수업은 언제 시작하는지, 방학에는 왜 이런 프로 그램이 개설되지 않는지를 묻는 학생들이 많아 만족도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년간 운영했던 TANDEM 프로그램에는 총 122명의 학생이, 한/영 번역을 통한 영 어 글쓰기 강좌에는 총 52명의 학생이 참여하였고, 현재 학기 초라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문 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렵게도 이번 학기에는 예산문제로 운영하지 못했지만, 앞으 로 계속 운영할 프로그램이니 저희 홈페이지를 꾸준히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운영의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산 부족 및 확보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한 예로 2012년에는 외국어 수업을 듣고 출석을 90%이상 하면 수강료의 90%를 지원해 주던 것이 현재는 50%밖에 지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국어 논문 교정비용도 페이지당 7,000원~18,000원까지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또한 부족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의 경우, 학습지원부의 업무 가운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업상담 프로그램이 있으며 글쓰기교실에서는 학생들의 글쓰기 과제물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지원부의 경우 강의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교수자에게 교수법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문대학 국제화지원센터의 프로그램 가운데도 학생들의 논문 작성과 관련된 프로그램과 외국인 교수님들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좌, 워크숍, 상담 등의 프로그램 가운데 소개해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먼저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가운데 '외국어/한국어 논문 작성 지원 프로그램'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학위논문이나 일반 논문을 외국어로 작성하는 경우 교정 비용을 실비로 10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에세이를 통한 영어 글쓰기 프로그램', '한영, 영한 번역을 통한 영어 글쓰기 프로그램' 등의 '영어 글쓰기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해당 전공자를 섭외하여 한 학기에 8주간 개설하는 단기 특강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및 영어 글쓰기에 대한 '일대일 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학기당 두 번까지 이용 가능하며, 한 학기에 약 1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교수님들을 위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어교육원의 한국어강의 수강료를 지원하거나 국내외 교수님들이 한 자리에서 정기적인 점심 모임을 가짐으로써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외국인 교수님들에 대한 지원이 학교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교(본부)에서는 외국인 교수님들에 대해 임용 후 생활적인 부분이나 특히 복무 규정 등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제공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거, 복지, 교육, 연금 등에 대한 정보를 외국인 교수님들이 잘 안내받을 수 있도록 영문으로 된 설명이 꼭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먼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한국어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국어 연습 프로그램'과 인문대 학생들의 영어 글쓰기 실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영어 글쓰기 프로그램'의 경우 보다 다양한 주제와 방법으로 확대하여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언어교육원 외국어/한국어 강의 수강료 지원 프로그램'이나 '외국어 출판물 교정 지원 프로그램' 또한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인문대학 재학생들이 교내외 외국인 학생들과 만나 교류하면서 국제화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돋는 프로그램인 'TANDEM & 소규모 카페' 프로그램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 활동 등 파트너와의 만남에 필요한 활동비를 20~30만원까지 지원하는데, 학생들의 호응도가 높습니다.

원장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문대 학생들이 CHOI의 좋은 프로그램들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십시오. 저희 기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도 CHOI의 존재와 좋은 프로그램들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뵈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